

중국조선족녀류시인작품선

하늘 그리고 평호빛찬가

연변인민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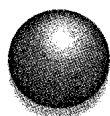


하늘, 그리고

경혼빛찬가



중국조선족녀류시인작품집



연변인민출판사

책임편집: 김학송

책임교정: 김홍화

图书在版编目 (C I P) 数据

蓝天、灵魂的赞歌: 朝鲜文 / 李顺玉等著. —延吉: 延边人民出版社, 2008. 4

ISBN 978-7-5449-0281-6

I. 蓝… II. 李… III. 诗歌-作品集-中国-当代-朝鲜语 (中国少数民族语言) IV. I227

中国版本图书馆CIP数据核字 (2008) 第069489号

蓝天、灵魂的赞歌

出版: 延边人民出版社

(吉林省延吉市友谊路363号, <http://www.ybcbs.com>

<http://www.ybcps.com>)

印刷: 延边新华印刷有限公司

发行: 延边人民出版社

开本: 880×1230 1/32 印张: 4.25 字数: 130千字

标准书号: ISBN 978-7-5449-0281-6 (民文)

版次: 2008年5月第1版

2008年5月第1次印刷

印数: 500册

定价: 9.00元

如发现印装质量有问题, 影响阅读, 请与印刷厂联系调换。

녀성과 시 그리고 충실한 삶

연변조선족녀류사회 회장 리순옥

시를 쓰는 여성의 삶은 참으로 충실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은듯싶다.

나의 비애와 환희 그리고 땀을 한떨기 꽃을 피우듯이 한 수의 시로 충실하게 빚어내는것, 이러한 감수는 참으로 감미로운것이다.

또 녀성본연에 잇닿아지는 생명의 이미지를 살리어 우리의 시가 다른 한 충실한 정신적존재로서의 나의 모습이고 나의 령혼이며 나의 전반 세계일 때 우리의 존재는 혼(魂)과 육(肉)의 가장 완전한 결합으로서의 우수한 생명체가 된다.

이러한 우질적인 혜안으로 우리는 가끔 양금빛으로 물들여진 결실이 적치되어있는 땅속을 껴질러보기도 하고 또 별빛소망이 흐르기도 하는 저 푸른 하늘가를 오래 응시하기도 한다.

흰구름이 유유히 스쳐지나며 평화로운 분위기를 안겨주는 하늘가, 때로는 비가 내려 쓸쓸해도 보이는 저 하늘가, 또 때로는 눈이 내려 깊은 명상에 잠기게도 하는 저 하늘가, 그 하늘가뒤에는 항상 푸른 색채가 받쳐져있고 그 푸른 색채는 푸

른 부름인양 우리를 향해 손짓을 하고있다.

그 푸름의 란에 우리는 자신의 소망과 령혼과 세계의 빛을
적어넣는다. 그렇게 푸른 하늘에 눈길을 굳혀 푸르게 버려진
시간들은 우리의 삶을 푸른 추구로 나날이 버려지게 한다. 푸
른 생명에서부터 기원되는 푸른 삶과 령혼과 세계, 이제 우리
는 푸른 생명이 꿰여지나는 푸른 우주의 심금의 소리를 듣는듯
하다.

푸른 하늘가에 물들여지는 생각을 꺾으며 그 푸른 생명의
의미를 버려가야 할 사람이 우리 녀성이고 그 푸른 심금을 울
려가야 할 사람도 우리 녀성임을 더 가슴치게 느낀다.

혼과 육의 가장 완전한 결합으로서의 우수한 생명체의 소
리로, 나의 비애와 환희 그리고 땀을 가장 아름다운 한떨기
꽃을 피우듯이 가장 완벽한 한수의 시로 빛어내는것, 이보다
더 충실한 녀성의 삶이 있을까...

늘 가까이에서 따뜻히 지켜봐주시고 이끌어주시며 참다운
결실을 맺도록 격려의 조언을 주시는 여러 작가, 평론가선생
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한번의 로고도 마다하지고
이번 시집의 평론을 써주신 연변대학 김경훈교수님께 깊은 감
사를 드리며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동족애의 마음으로 이번
시집의 출간에 사심없는 후원을 주신 한국 《한연연》과 역시
이번 시집의 출간에 물심량면으로의 따뜻하고 후더운 도움과
지지를 주신 연변인민출판사에 충심으로 되는 감사를 드리는
바이다. 앞으로 중국조선족녀류시문학의 돈독한 발전에 자신의
혼신을 불사르는것으로 여러분의 참다운 배려와 고무와 기대
에 보답하고픈 생각을 여쭙올리고싶다.

2008년 3월

차 례

녀성과 시 그리고 충실한 삶	1
국화꽃향기(외 4수)	김영애 1
고 향(외 4수)	김명순 8
그리움(외 4수)	김미화 11
천애지각(외 2수)	김득희 18
아리랑(외 8수)	리순옥 20
단 풍(외 2수)	리미옥 32
성 숙(외 4수)	박설매 35
낡은 책(외 4수)	박명순 41
두만강 여울소리(외 4수)	송미자 46
계명성(외 4수)	윤영애 52
락엽속에 그리움 묻어놓고(외 6수)	임은숙 58
겨울의 축복(외 5수)	안금화 66

성밖도 성이다(외 6수)	전춘매	70
굴 뚝(외 2수)	조혜선	79
나의 V(외 5수)	주매화	84
무제2(외 6수)	최기자	89
방황(외 4수)	최은희	96
과 정(외 6수)	최혜숙	101
인생이란(외 2수)	최금희	104
바 램(외 2수)	허련화	107
평론	김경훈	110
부록		122

국화꽃향기(외 4수)

김영애

들에 만발한
국화꽃숲사이를 거닐면
자연의 몸부림이 보입니다

이미 핀것들과
아직 채 피지 못한것들과
앞으로 피여날것들이
바람결에 속삭이며
꿈을 만들어갑니다

자주빛국화는
자주꿈을
하얀빛국화는
하얀 꿈을
노란빛국화는
노란 꿈을
큰 꽃송이는
큰꿈을
작은 꽃송이는

작은 꿈을
꽃봉오리는
꽃봉오리의 꿈을

나름대로의 꿈으로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국화꽃의 아름다운 뒤모습은
커피 한잔의
깊은 겨울향기였습니다

벽

어릴 때엔
학교다닐 때엔
벽이라는걸 몰랐습니다

사이와 사이를 막아주는
간막이로만 알아왔습니다.

언제부턴가
저는 벽의 무서움을 깨쳤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회에

여린 날개를 선보일 때였습니다

조꼬만 날개를 파닥이며
돈과 권력에 저항했습니다

어제도 래일도 오늘도 아닌
여기도 저기도 거기도 아닌

이제 벼랑 천지꽃 붉게 타는
봄날이 오면
벽차고 나가 목메여 울립니다
미친년처럼
오- 벽아

바람과

바람은 자연에 있지
그렁구말구

고요한 마음에
바람이 인다

나그네도 싫다

안해도 싫다
오빠가 좋다
동생이 좋다

고향의 냇에 바람질이다
출국이다
로무수출이다
우상숭배다
장사다
사직이다

사청에 부는 바람질에
인정이 흩어진다
마음이 추워난다

바람아
너는 자연에만 불수는 없을가

이 봄에 녀자다운 시를

첫날밤 이불속에 감춰진
수줍은 사랑이야기처럼
분홍빛으로 하롱하롱



하늘, 그리고 경혼빛찬가

내앞에 다가서는
봄꿈 한자락
내 입술에 흔적을 남기고
내 자궁에 시를 잉태시키고
내 령혼에 랑만을 부어놓고
어느덧 목화송이같은
보송보송한 열매가 되면
나는 아이 낳는 여자처럼
몇분간에 한번씩
수없는 진통을 겪는다

가을에 고백합니다

붉은 꿈이 찰랑찰랑
샘같이 고이는
랑만 한수를
자연과의 키스가 머무는
성숙의 가을에
노오랳게 고백합니다

따스한 숨이불같은
겨울눈속을 비집고
한알의 콩씨가 되어



흙의 품에
황홀하게 드러누운 날

쟁글쟁글 해빛이
자꾸만 유혹하는 바람에
깃을 펴고
인간세상에 나와버렸습니다

달은 밝고
별은 반짝이고
하늘은 푸르고
사람은 살고있었는데

마음씨 고운
한 사나이가
갈망에 목마른
콩싹이 된 나에게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정을 주며
속삭인 여름이야기

설음이 도란도란 흐르는
가을밤에 그만
락엽이 되어
깜박깜박 조을고있는



긴 가로등아래
방황하는 소녀의
열손가락새로 흐르는 피에
젖어들어 삼시에
타오르는 화염이 되었습니다

타서 까맣게 된
못난 몸뚱아리로
울긋불긋 찬연하게 장식한
가을사나이를 마주하고
잃어버린 진실을
찾지 못한채
어린애처럼 울면서 고백합니다

나는 가을을 사랑하면서
사랑할수 없는 몸입니다.
내 몸은 허위에 타버린
슬픈 락오자의 뒤모습이기때문입니다



김영애:

1974년 길림성 장백현 출생. 연변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통신학부) 졸업. 연변작가협회 회원, 장백현방송국 조선어부주임.

E-mail: yingai1974@hanmail.net

고 향(외 4수)

김명순

창을 열면 내 하늘이 보입니다
동년의 나를 고스란히 두고 온
고향의 하늘이 오늘도 나를 유혹합니다

흐르는 시간의 투명한 거리속에
오늘도 나의 시선은 불투명한 세상에서의
탈출을 꿈꿉니다

아버지

나의 눈물로 투명해지는
세상이 아름답다고

나의 미소로 영그는
계절이 성숙이라고



내게 하늘과 땅을
선물하신 당신은

나의 사계의
주인입니다

눈 2

널 위해 흘린 눈물은 없어
다만

널 향한 그리움이 창밖에
하얗게 쌓이고있을뿐이야

고독

오고 가는것이 섭리라면
만나고 헤어지는건 순리겠죠

영원이 없는거라면
사랑도 순간의 충동이겠죠

백년동안의 고독이
인생의 전부라 해도

나는
그 고독을 사랑하겠습니다

봄

봄은 내게 왔지만
나는 봄에 가지 못해
내안에 봄이
봄안에 나를
서럽게 바라본다



김명순:

1983년 길림성 룡정 출생. 연변 대학 조선언어문학학부 졸업. 시, 수필 다수 발표. 《연변문학》운동주문학상 신인상 수상. 연변텔레비죤방송국 뉴스종합채널 “연변뉴스”편집. 연변 조선족녀류사회 비서장.

E-mail: gimmiengsun@hanmail.net

하늘, 그리고 경춘빛찬가